

“광주에 문화예술 융·복합 인프라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박근혜 문화공약 뭐가 있나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 융성’을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의 문화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문화 관련 국정목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인수위는 지난 21일 5대 국정 목표 중 세 번째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밑에 13번째 추진전략으로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세우고 그 아래에 7가지(76~82번)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그중 첫 번째인 76번 과제가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은 4조 1723억 원으로 문화재정 예산 약 5600억 원을 포함해도 문화재정 비율이 1.39%에 그친다. 그러나 문화재정의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째인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국민의 문화기본

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연계 법안인 여가활성화기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다양성보존법·문화예술진흥법(메세나법) 등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나아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77번 과제)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예술인 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주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78번 국정과제인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새 정부는 ▲주민센터와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로 조성 ▲내년까지 전국 1300개 어린이집·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및 전국 1만1532개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공연장·박물관·경기장 등 활인·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 도입 ▲문화114 콜센터 운

영 및 문화복지사 지역별 배치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문화·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79번 과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한민족 문화이카 이브 구축 및 도서관의 인문학 부흥 거점화 ▲재외 한국문화원·세종학당을 해외 한국문화 보급의 거점기관으로 활용 ▲문화예술 ODA 사업 및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 외에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을 문화부문의 국정과제를 정해 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광주를 방문, 문화 지원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5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앞 유세에서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키우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문화를 근간으로 세계적인 인권관광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 융·복합의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문화’ 어록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후보 시절 지역 공약)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25일 국립현대미술관 방명록)
-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25일 대통령 취임사)
-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
- ▲“앞으로 문화를 통해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26일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아시아예술극장 내부 공사 한창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6일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에서 내부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2015년 상반기 문화전당을 개관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문화수도조성사업 이것만은...

① 전당 콘텐츠 예산 2500억 당장 반영을

② 개관 프로그램 운영 전시감독 선임

③ 인프라 확충·CT연구원 ‘국책’으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전담인력 채용은 물론 개관에 필요한 콘텐츠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개관에 앞서 최소 2년 전부터 운용 인력을 채용하고 콘텐츠 구축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인력 채용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올해 확보한 콘텐츠 구축예산은 사실상 쥐꼬리다.

전문가들은 “인력채용이 늦어지면 개관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문화전당이 문을 열게 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당 콘텐츠 예산 확보 차질=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은 모두 5조3000억 원으로 잡혀있다. 문화전당 건립·운영비는 모두 1조9000억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2조1000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 8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오는 2015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전시·공연 콘텐츠를 구축할 예

산은 사업비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매년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추진단이 2013년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해 2500억을 반영해줄 것을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반영액은 70억 원에 그쳤다.

추진단은 이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해외 전시관 작품 섭외 및 의뢰, 문화예술 전시감독 등 전문가 집단구성, 각종 연구사업, 공연·전시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개관 준비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더구나 문화전당이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예산 2500억원(국비)을 확보하는 것은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전당을 가동할 콘텐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전당 개관 후 프

그램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공연·전시 콘텐츠 준비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전담인력 채용 시급=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문화창조원·아시아문화원·아시아예술극장·아린이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문제는 오는 2015년 상반기 문화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당을 운용할 전담인력의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대한 문화전당을 운영할 인력은 현재 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진단은 올 안으로 운용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전당 운용 중장기계획 수립 등 개관운영 프로그램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처럼 인력 채용이 늦어지면 개관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전당만을 개관하는 지경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올 안으로 문화전당이 콘텐츠를 꾸릴 수 없다면, 문화전당의 개관프로그램을 운영할 아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의 운용 프로그램을 짤 전시감독만이라도 우선 선 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광주에 문화전당이 건립되지만, 문화산업 토양은 척박하다. 문화전당 건립과 더불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지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문화예술대학 설립, 국가문화예술공원 조성, 국립 아시아미술관 설치, 국제문화예술 창작특구 조성 등을 건의했다. 모두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광주에 설립키로 한 CT(문화기술)연구원의 국책연구원으로 위상 격상도 절실하다. 연구인력이 소수인 데다 별도청사가 없어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어쨌거나 잘 좀 해주세요

1984. 10 창간

月刊 藝鄉

2002. 2 휴간

2013. 4

예능야

藝鄉

그 설레는 재회